

##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연구\*

### 서울기록원의 수집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Documentary Archiving Focusing on the case of Archiving by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안드리(An, Duree)\*\* · 송영랑(Song, Young Rang)\*\*\*

1. 서론
2.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구성
  - 1)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의미
  - 2)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조건과 특징
3.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실행
  - 1)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기획과 절차
  - 2)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수집 사례
4. 결론

\* 이 연구는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박사 수료 (주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syrang81@naver.com) (교신저자).

■ 투고일: 2020년 06월 30일 ■ 최종심사일: 2020년 07월 10일 ■ 최종확정일: 2020년 07월 18일

■ 기록학연구 65, 227-251,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5.227>

## 〈초록〉

도시의 기록화는 행정영역의 기록만으로 완전할 수 없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기록이 함께 수집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서울기록원의 서울시 기록화 사업 사례를 토대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수집되기 어려운 시민의 기억을 남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학 실천주의의 입장 아래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아도 기억에는 존재하고 일상에 스며있는 서울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남기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도구로 제안하였다.

다큐멘터리는 서사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매우 자의적 성격을 갖지만 구술이 아닌 다큐멘터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이 서사성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구술기록이 갖는 자기역사성과 그로 인해 제공되는 필요 이상의 기억들을 배제하고 수집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록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문에서는 서울기록원에서 서울기록 수집으로 제안한 서사 기반의 기록 수집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사기반 수집 안에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방법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을 실행하기 위한 기획·절차와 함께 2019년 서울 기록 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3편의 다큐멘터리 중 한 편을 사례로 소개하였다.

**주제어 : 서사 기반 기록 수집,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기록학 실천주의**

## 〈Abstract〉

The documentation of a city can never be complete with only the docu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domain, and requires that of its citizens, who are living in the city in different ways.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the documentation of the memories of the citizens, which either have never been produced or have been damaged and thus are difficult to be collected.

From the Archival Activist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s documentary as its research method, in order to leave trace of various experiences of Seoul, which are not recorded in document but are rooted in its people's memories and their daily lives.

Documentaries are characterized by their narrative. This can be somewhat arbitrary, but it is due to their narrative that this study suggests documentaries, rather than oral statements, as a new form of method. While, due to its self-historicity, oral records are subject to producing redundant or irrelevant memories, documentaries enable the documentation of data relevant to the topic of collection.

First, the study presents the narrative-based archiving, which is the same method of collection suggested by Seoul Metropolitan Archives, and then explores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documentary archiving. It further presents the conditions in which documentary archiving is required in the context of narrative-based collection.

The study presents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documentary archiving and introduces one of the three documentaries produced by 2019 Seoul Archiving Project.

**Keywords : narrative archiving, documentary archiving, archival activism**

## 1. 서론

도시는 하나의 자생적인 유기체이며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유현준 2015, 123). 물론 하나의 도시를 시간의 배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작은 동네라 하여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기록화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가능한 다양한 관점과 기억들을 모

아야한다. 따라서 도시를 기억하고 재현하기 위한 기록화 작업에는 기능적 수집을 지양하고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기억을 환기(설문원, 김정현, 2013)시킬 수 있는 문화적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기록으로 남겨지기보다 기억과 일상의 모습 속에 남게 되는 시민들의 소서사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한다.

전통적인 기록 수집 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파편적인 기록의 집합을 얻게 된다. 특히 기록의 수집이 공공기관의 주체로 진행될 경우, 행정기록 중심의 결과물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서울기록원은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하여 서울이라는 도시를 총체적으로 기록화하고자 하였다.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점의 기록을 통해 재현 가능한 총체적 기록화를 위하여 수집도구로 '서사'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서사기반 수집도구인 서사 기반 수집 실행 지침(Seoul-Narrative Archive Policy, 이하 S-NAP)을 개발되었다. 9개의 주제 영역에 서울을 표상할 수 있는 수집 주제로 70개의 S-NAP을 구성하였고, 그 아래 실제 수집이 실행되는 200여 개의 하위 S-NAP을 두었다. 실제 수집이 진행되는 하위 S-NAP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내러티브는 수집기록의 평가·선별 도구가 된다.

설계된 S-NAP으로 실제 4개의 상위 S-NAP에 대한 수집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민간의 영역에서 수집주제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이 충분히 발견되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또는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모형'이라 하였다. 서울기록원의 수집 사업에서 다큐멘터리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사기반 기록 수집에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이 어떤 의미와 특징을 가지며, 그 결과물이 유효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다큐멘터리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와

이를 실행에 옮긴 서울기록원의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사례를 살펴본다.

## 2.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구상

### 1)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의미

기존의 행정기록 중심의 기록수집정책은 행정적, 증거적 가치 이외에 개별 기록이 갖는 사회적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단편성은 수집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기억들을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설문원, 김정현, 2013). 기록학계에서는 시민의 일상과 기억, 삶을 기록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수집 실행에 이를 적용한 것은 2012년부터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삼복도로의 마을 아카이브의 사례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수집을 설계하는 시도이다(김화경, 2012). 이 연구는 아키비스트와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기록 수집 방법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삼복 마을의 경우 마을의 주인이자 주체인 주민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와 그 기록이 중요한 자원임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을 도모하였다.

삼복도로의 사례에서는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을 지역 아카이빙과 일상 아카이빙이라 말한다(김화경, 2012). 대도시인 서울은 마을의 규모가 아니며 그 인구도 많아 일상 아카이빙을 실행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수도로 인지되는 지역의 아카이빙이 가능하다. 권순명과 이승휘(2009)는 지역 아카이빙의 목적은 주체적인 로컬리티의 구축에 있으며, 로컬리티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변화사와 지역의 삶과 풍경, 그리고 지역민의 생애와 문화를 보존해야한다고 하였다.

서울기록원이 추구한 서울의 기록화 역시 지역 아카이브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을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하여 외부적 시선에 의한 기록의 해석을 지양하고 내부적 시선으로 보통 사람의 기록에 근거한 기록의 수집과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서울 속 미시기록의 수집은 서울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의 재현은 서울의 로컬리티와 그 안에 주체로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서울의 로컬리티는 공적 영역의 행정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기억이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향으로 서울기록원은 다양성 있는 기록의 총체적 수집을 통하여 서울의 로컬리티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양한 관점의 기록은 주제적 접근이나 유형적 접근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설계된 것이 S-NAP이다. S-NAP은 사회현상과 삶의 현장의 관점에서 서울을 표상할 수 있는 주제영역들을 선정하여 그 각각 서사를 부여하여 설계되었으며, 이 서사는 기록을 식별하는 도구가 된다.

S-NAP을 활용한 수집의 실행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행정기록물 중심에서 '서울 시민의 기록'으로 시선을 옮겼다는데 있다. 민간기록인 '서울 시민기록'은 그동안 아카이브에서 공식기록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훼손이 쉽고, 생산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기록이었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서울의 현상들을 고정된 기록만으로 수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서울의 보이지 않은 맥락까지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재현도구가 필요하였다.

아카이브의 입장에서 다큐멘타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1960년대에 대두되어 2011년의 월가점령운동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확대된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록학 실천주의와 서울의 기록화는 공평하고 통합적인 기록화를 위해 다양한 소서사의 공존을 지향(이현정, 2014)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는다. 실천주의를 추구하는 아키비스트는 전통적인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가능한

많은 경험과 기억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찾아야하며, 나아가 생산해야한다(Randall C. Jimerson, 2009).

이 흐름에서 아카이비스트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구술기록이다. 그러나 구술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는 자기역사성을 갖는다. 수집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구술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까지 얻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울기록원은 기존에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를 위해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을 시도하였다.

사실의 기록이라 여겨지는 다큐멘터리는 복제가 아닌 재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준다. 다큐멘터리는 재현을 위한 방법으로 내러티브, 서사를 사용하는데, 이는 매우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서사를 의미한다.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다큐멘터리의 서사성은 기록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기록학 실천주의의 흐름 속에 하나의 기록으로 인정받게 된 구술기록 역시 서사성을 갖는다. 구술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구술자 관점에서 이야기에 인과성이 부여된 서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큐멘터리의 서사성을 기록 수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수집 주제가 가진 맥락 안에서 기록으로 포착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현상 또는 개인의 삶을 서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방법이다. 서울기록원의 서울 기록화 사업에서 다큐멘터리 주제서사라는 틀로 개인의 삶에 집중하였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구술의 방법이 아닌, 전체에서 주제서사에 부합한 일부를 보여주는 방법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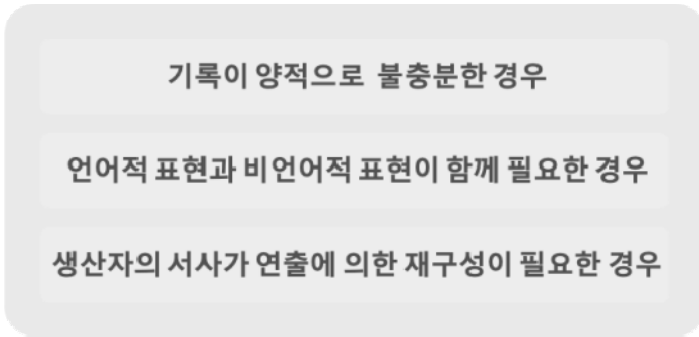
하지만 일부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필요하다. 전체를 구하기 위해 서울기록원은 구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구상 하였다. 여기에 연출에 의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과 일상의 모습을 함께 담고자 하였다. 서사적 기

획과 연출로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수집 주제에 대하여 기록물만으로는 불충분한 시민과 일상의 관점의 기억을 남긴다.

## 2)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조건과 특징

서사기반 수집방법 안에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모든 수집 주제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결과물이 아카이브 액티비즘으로써 유용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림 1〉 다큐멘터리아카이빙의 조건



첫째, 수집되어야 하는 주제적 대상은 명확하나 포착되는 민간영역의 기록이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역으로 기록을 생산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 수집 주제에 대하여 생산되고 남아있는 기록은 없지만, 개인의 기억으로 증언할 수 있을 때 그 기억을 기록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을 사용한다.

이 조건만으로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러나 구술 기록은 언어적 표현이 주를 이루며, 자기역사적 성격이 강하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구술기록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아래 두 조건이 더 필요하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두 번째 조건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함께 필요한 경우이다. S-NAP은 시민의 삶과 기억을 기록화 하기위한 방법이며, 다큐멘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기록보다도 삶의 기억과 흔적을 남기는 도구가 된다. 삶의 기억은 구술기록의 오디오만으로는 온전한 의미 전달이 어렵다. 구술자의 표정과 행동의 비언어적 표현이 같이 전달되어야 한다.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라고 칭하는 구술은 개인의 기억을 남기는 방식이다. 삶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구술의 영상과 오디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구술자의 삶의 현장과 행위의 모습과 관련 자료가 함께 전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의 서사가 연출에 의한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이다. 삶의 기억을 구술로 남기게 되면 구술자, 즉 생산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구술을 통하여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반면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에서 주목하는 것은 개인의 삶 전체가 아닌, 개인의 삶 가운데 수집주체에 정합한 일부이다. 따라서 구술 가운데 기획 의도에 맞는 내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다큐멘터리의 자의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이 수행되지 않으면 수집 주제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게 된다.

서사기반 수집에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개인의 서사에 집중하여 결락될 수 있는 수집 주제에 대한 다층적, 다원적 관점들을 기록화한다. 둘째, 수집 주제의 기록화 실천주의 수행을 위한 방법이다. 셋째, 기존의 다큐멘터리 촬영 방식에 기록학적 수집 방법을 결합시킨다.

### 3.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실행

#### 1)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기획과 절차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기록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포착하지 못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담으려는 것이다. 그 수집과 기획의도에는 S-NAP에 담겨있는 서사적 맥락, 사회·문화 현상과 시민의 삶이 담긴다. 다큐멘터리의 서사를 풀어가기 위해서 영상과 음향, 인터뷰,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을 처음 시도한 2019년 사례에서는 다큐멘터리에서 '시네마 베리떼'라 불리는 참여적 양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인터뷰와 같이 연출자의 개입으로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아카이브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개인의 기억을 남기기 위하여 다큐멘터리의 서사는 구술을 중심으로 풀어가며, 서사와 관련된 현장과 자료를 함께 담아 서사를 입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서사가 중심이 된 기록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실행을 위한 인력은 영상제작 전문가, 문화 전문가, 그리고 아카이비스트로 구성한다. 영상제작 전문가는 구술을 활용한 공간과 현상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제작의 경험이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과 영상제작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큐멘터리팀이 필요하다. 다큐멘터리 감독은 촬영 주제와 제작 목적에 맞는 시놉시스 구상 능력을 갖춰야 하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촬영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촬영의 결과물은 수집 대상의 평면적 모습을 넘어 시청자가 공간과 현상에서도 수집 대상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담아내야 한다. 문화 전문가와 아카이비스트는 문화콘텐츠와 기록학적 연구를 통하여 서울 기록화사업 수집 실행 전반을 담당하는 수집팀이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에서는 영상제작 주제와 시놉시스를 감독과 함께 논의하고 촬영을 위하여 접촉할 대상을 선정하고 과정기록의 생

산을 맡는다. 이러한 인력의 구성은 기록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모여 기록을 생산하고 기록의 의미를 재생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서울기록원의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인력구성도 ‘다원적 주체’들의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참여하였다. 서울기록원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자, 아키비스트, 문화전문가들이 서사와 수집대상, 사회현상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수집팀 구성은 아카이브가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다원적 주체들이 함께 협업할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서울기록원의 시도는 아카이브가 다양한 주체들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인력 구성

구분	설명
영상제작 전문가 (다큐멘터리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술을 활용하여) 공간과 현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경력이 있는 감독</li> <li>- 주제와 제작 목적에 맞는 시놉시스 구상 능력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촬영 기술 보유</li> <li>- 수집 대상의 평면적 모습만이 아닌, 현상과 현상이 가진 분위기를 담아낸 영상 기대</li> <li>- 다큐멘터리팀(영상제작팀) 구성 : 연출 1인, 카메라 1인, 오디오 1인, 조명 1인</li> </ul>
문화 전문가 아키비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진으로 구성된 사업의 수집팀</li> <li>- 수집대상 S-NAP의 사전 조사와 수집 계획, 실행 전반을 담당</li> <li>-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에서 접촉 대상 선정과 수집기록 선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과정기록 생산</li> </ul>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실행 단계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기록 수집의 절차를 융합하여 설계하였다. 다큐멘터리의 프로세스는 사전 제작(pre-rod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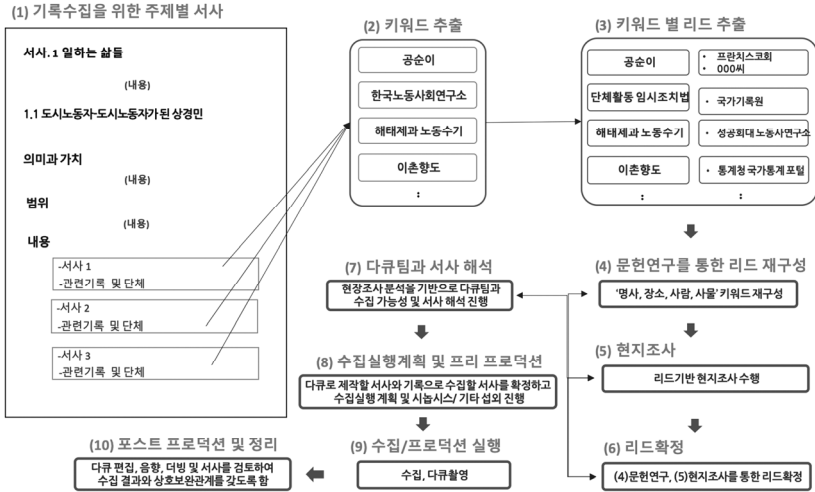
촬영(production), 그리고 후반작업(post-production)으로 이루어진다. 사전 제작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작업을 일컫는다. 다큐멘터리의 주제 선정과 사전답사, 시나리오와 제작 계획안 작성, 그리고 제작 실행과 예산도출을 위한 기획회의 등이 포함된다. 촬영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로우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현장과 인터뷰 촬영, 오디오 녹음 등을 진행한다. 후반작업에서는 촬영하여 생산된 로우데이터의 편집, 오디오 믹싱, 그리고 필요에 따른 내레이션 녹음, 자막 작업이 해당된다.

〈표 2〉 다큐멘터리 제작 절차

과정	세부단계
사전 제작 (Pre-Production)	1. 기획회의 2. 현장답사 3. 시나리오 (영상 구성안)
촬영 (Production)	촬영
후반작업 (Post-Production)	편집, 오디오믹싱, 내레이션 녹음 등 후반 작업

서울기록원에서 수집과 병행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프로세스는 서사 기반 수집 절차와 다큐멘터리 제작 절차를 결합하여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아래 〈그림 2〉의 10단계로 구상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단독 수행을 위한 절차이기 보다는 서사 기반 수집 안에 함께 수행되는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절차이다. 수집 실행을 위한 서사에서 키워드를 도출하는 단계부터 수집팀과 다큐멘터리팀의 협의과정이 진행된다. 수집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분리하지 않고 수집의 시작 단계에서부터의 협업을 통해 주제의식을 공유함을 의미한다. 공유된 주제의식 가운데 수집팀과 다큐멘터리팀의 지속적인 소통은 S-NAP의 서사와 다큐멘터리 시나리오의 정합성을 높인다.

〈그림 2〉 서사 기반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프로세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다큐팀과의 유기적인 협업과 성공적 수집을 위한 서사의 다양한 해석이다. 수집을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서사를 기반으로 다큐멘터리로 만들 것과 기록으로 수집할 것을 구분하여 수집대상자를 빠르게 식별하고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기록으로 획득 될 수 없는 윤리, 현상 권력 관계와 같은 맥락을 다큐멘터리로 설명하고, 아키비스트는 수집된 기록을 다큐팀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수집 기획단계부터 기록수집팀과 다큐팀의 상호소통과 참여가 전제된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1)기록수집을 위한 주제별 서사는 수집이 결정된 S-NAP을 의미한다. S-NAP을 설계하며 조사된 주체 유형에 따른 수집 예상 기록과 서사가 담긴 내용을 검토하여 수집 실행에 핵심이 될 수 있

는 (2)키워드를 추출 한다. 추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일차적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키워드의 의미를 분석하고 동시에 (3)각 키워드 별 리드를 개발한다. (1)부터 (3)까지의 프로세스는 서사 기반의 수집 실행을 위한 절차로 서사의 분석과 실제 수집을 위한 키워드와 리드의 도출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4)부터 (7)까지의 단계는 수집 S-NAP 키워드와 리드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는 절차이다. 추출된 리드는 (4)문헌연구를 진행하여 명사·장소·사람·사물로 재구성한다. 재구성된 리드는 다시 한 번 (5)현지조사의 과정을 거친다. 앞서 리드 개발을 위해 진행한 현지조사는 키워드의 의미 분석이 목적이었다면, 여기서의 현지조사는 리드의 기본정보와 상황, 수집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현지조사 중 접촉하게 되는 소장자에게는 수집의 목적과 의의, 방법, 방향성 등을 전달한다. 사업 설명을 하며 진행되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기록으로 생산되지 않았지만 촬영주제와 연관이 깊은 기억이 있는지 파악한다. 소장자와의 접촉 결과는 케이스 파일로 정리한다. (6)리드확정 단계에서는 아카이빙 대상의 문헌연구 내용과 현지조사 결과가 정리된 리드 파일과 케이스 파일을 토대로 수집을 위한 리드를 확정한다. 수집팀에서 수행하는 (4)에서 (6)단계의 과정으로부터 조사된 내용과 확정된 리드 정보는 다큐멘터리팀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7)서사를 해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수집할 기록과, 구술 채록이 필요한 것, 그리고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이 필요한 서사를 결정한다.

(7)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8)수집팀은 수집 실행 계획을, 다큐멘터리팀은 사전제작을 준비한다. 다큐멘터리의 사전제작 시놉시스를 작성하고 인터뷰와 스케치 촬영<sup>1)</sup>을 위한 섭외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도 시놉시스 작성은 서사의 정합성을 위하여 수집팀과의 교류가 필요하며 섭외 진행에서도 리드와 사전 접촉한 수집팀과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래의 <표 3>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시놉시스의 예시이다.

---

1) 장소나 인상을 촬영하는 것.

〈표 3〉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시놉시스 예시

개요	제목	청년 김용균 (가제)	완성 예정일	2020년 12월 20일
			시간	30분
	감독/제작	임**	규격/색채	4K / color
기획 의도	<p>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죽음에 여러 원인이 있다. 산업재해는 걸으로 드러난 편한 말일뿐 비용 절감을 인한 외주화 된 하청에 하청, 그리고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 갈 수밖에 없는 순환들이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참사로만 그를 기억하기엔 남겨진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다. 이 기록 다큐는 참사에만 머물지 않고 이후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참사의 그 순간, 그리고 자연인 고 김용균 씨의 생을 역순으로, 박하사탕의 플래시 백 기법처럼 시간을 뒤로 점점 거슬러 올라가 그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를 바라본다.</p>			
	<b>시간의 역순으로</b>			
	현재~2019	재해현장과 각종 비정규직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김용균 재단 인물들 (스케치)		
	2018.12.10.	<b>참사 당일의 기억</b>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유품, 사진,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터뷰도)		
	2018.11.28.	김용균씨의 동료들. (“ <b>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시다</b> ” 피켓팅 ) 활동하게 된 계기 등 인터뷰		
		<b>태안화력발전,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b> 그가 근무한 태안화력발전소의 한국서부발전을 비롯 충남에 위치한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발전된 전기를 서울로 보낸다. 충남도 생산 전기의 300% 이상을 생산해 서울과 경기도로 보내는 구조.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위험 속에 내몰린다. (에너지지정의연대 인터뷰요청)		
	2018.09.17.	대학 졸업 후 7개월만의 취직. 취업난 속에서의 그의 모습(친구들, 부모님 인터뷰)		
		.....		
1994.12.06.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남 (부모님 인터뷰)			

(9)수집과 촬영단계는 실제 기록을 수집하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앞선 단계에서 조사하고 분석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토대로

기록을 수집하고, 구술을 채록하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진행한다. 다큐멘터리의 촬영은 시놉시스를 기본으로 진행되지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술을 포함한 진행상황을 수집팀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한다.

다큐멘터리의 촬영은 인터뷰 촬영과 스케치 촬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 대상과 내용을 조사하고 대략적인 질문의 흐름을 구상한다. 많은 경우 이 질문들은 고정된 서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아카이브에서의 구술은 질문지와 면담일지, 동의서, 구술 녹음파일과 녹화파일 등 과정의 기록과 결과물을 함께 생산하고 보관한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에서의 인터뷰 촬영은 구술 기록 생산의 방식을 따르나 다큐멘터리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본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단순화하여 진행한다. 인터뷰의 결과로 얻는 오디오와 영상 원기록은 별도의 생산기록으로 의미를 갖는다. 스케치 촬영은 아카이빙 대상의 현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나 행위 영상, 장소 영상, 물건 촬영 등을 진행한다. 수집 대상자가 소장한 기록만으로 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박물관기록을 중심으로 촬영한다. 촬영은 시놉시스를 기본으로 진행되지만 구술을 포함한 수집 진행상황을 연구진과의 계속 소통하며 보완한다. 수집팀은 소장자를 만나 촬영할 경우 촬영팀과 동행하며 수집 과정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구술을 진행할 경우 질문지와 비공개검토서, 구술증언 주요정보, 면담후기 등 구술을 위한 과정기록의 서식을 관리한다.

기록수집은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제작 과정에서 포착된 수집대상 기록의 수집을 의미한다. 촬영단계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서울기록원의 수집정책에 따라 디지털기록으로만 수집한다.

(10) 후반작업과 정리 과정에서 다큐멘터리팀은 현장에서 촬영하고 녹음한 로우데이터를 편집하고 가공하여 다큐멘터리를 완성한다.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연구진의 피드백을 통해 수집결과와 상호보완관계를 갖도록 수정한다. 수집팀은 수집된 기록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메타데이터를 기

술한다.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완성된 다큐멘터리 결과물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의 로우데이터도 기록화 대상으로 포착한다.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어 관객에게 보여지는 결과물이 중요하여 제작 과정 중에 생산되는 원기록을 보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아카이브에서는 어떠한 행위의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기록과 원기록까지 함께 남겨야 한다.

## 2)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수집 사례

서울기록원에서는 2019년 서울기록 수집 사업을 진행하며 수집 대상으로 상위 S-NAP 옛것, 광장의 외침, 조형물, 콘크리트 서울 네 개 영역을 선정하였다. 네 개의 영역에 대하여 문화 전문가와 아키비스트로 구성된 연구진이 수집팀 각 영역별 수집이 실행된 하위 S-NAP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2019 서울기록 수집 사업의 S-NAP 수집 영역

주제영역	상위 S-NAP	하위 S-NAP
1. 상징	1.2. 서울의 옛 것	1.2.1 한양도성 - 한양도성 안팎의 흔적들
		1.2.2. 뉴트로 감성과 추억을 선사하는 다방, 극장, 이발소
		1.2.3. 장인 - 기억해야 하는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1.4. 콘크리트 서울	1.4.1. 석조건물과 콘크리트 건물 - 석조를 밀어낸 콘크리트
		1.4.2. 콘크리트 랜드마크
		1.4.3. 고가도로 - 머리위로 올라간 콘크리트 도로
		1.4.4. 콘크리트와 생태의 만남
		1.4.5. 콘크리트의 재생산 - 아파트 1세대의 향수
	1.6.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1.6.1. 이순신 동상 - 지배 이데올로기의 표상, 이순신 동상
		1.6.2. 평화의 소녀상 - 소녀상을 통해 응집된 기억
	1.7. 광장의 외침	1.7.1. 마로니에공원 - 마로니에 공원의 자성과 문화적 열망
		1.7.2. 광화문광장 - 희망의 외침, 광화문 광장
		1.7.3. 장충단공원 - 장충단공원의 명과 암
		1.7.4. 여의도공원 - 군사광장에서 시민광장이 된 여의도 공원

서울기록원은 S-NAP 수집 영역에 대하여 '성벽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

‘영화 간판쟁이’, ‘광장-세월호’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벽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을 사례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실제 실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위 S-NAP 가운데 ‘한양도성’을 통하여 그 자체의 역사와 도성 안팎의 삶의 모습을 남기고자 하였다. 한양도성은 수도와 지방의 경계이자 삶과 죽음을 나누는 벽이었다. 현재 큰 발전을 이룬 서울의 모습 안에서도 성벽 근처의 마을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그 경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한양도성에 대한 문헌을 포함한 사전조사 결과 도성의 역사와 도성 안의 마을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공공기관과 산하공공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기록원, 문화관광부, 서울시의 한양도성박물관 등에 소장 기록을 파악하였다. 도성 바깥의 마을들에 대한 기록 역시 공공기관에서 소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대부분 도시재생과 관련한 기록이었다.

수집 사업팀은 ‘한양도성’의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대상으로 도성 밖의 삶의 모습들에 초점을 맞추어 리드를 개발하였다. 성벽 밖의 많은 마을들 중에 도성 밖 첫 마을이자 돌산밀, 돌산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창신동에 주목하였다. 창신동은 일제강점기 채석장 부지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지금도 채석장의 흔적이 남아있다. 60년대부터 봉제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좁은 골목이 봉제공장으로 가득했고 지방에서 돈을 벌기 위해 봉제 기술을 배우러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금은 기술과 생산방식의 변화,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전성기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오랜 시간 봉제마을 창신동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의 흔적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진행하였다.

창신동의 리드 개발은 현지조사와 함께 병행되었다. 봉제장인을 창신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을 만나고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 수집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소장 기록을 확인하였다. 간단한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소장자의 삶과 다큐멘터리 서사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촬영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접촉한 소장자에 대한 정보는 아

래와 같이 리드와 케이스 파일로 정리하였다.

영상제작 전문가에게 문헌 조사 내용과 리드의 정보를 공유하고 창신동 봉제마을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의 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나 현장조사와 리드 개발 당시 파악한 개인 소장기록은 대부분 생업과 관련한 기록이었으며, 도성 밖 첫 번째 마을의 변화 과정이 담겨있는 것은 몇 장의 사진에 불과하였다. 수집기록에서 마을의 변화과정과 이를 마주하는 주민들의 심경 등 기록으로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은 구술을 중심으로 촬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창신동의 많은 주민들의 일상의 모습과 흔적은 봉제장인의 삶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도성 밖 첫 마을 창신동의 주민임과 동시에 봉제마을의 봉제장인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사업팀과 영상제작 전문가는 다큐멘터리에서 '한양도성'과 '장인'을 함께 다루도록 방향을 수정하였다. 처음 구상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하나의 하위 S-NAP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상황에 따라 두 주제를 분리하여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다큐멘터리의 서사 내용이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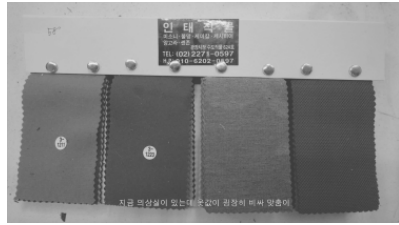
수정된 서사의 방향을 토대로 다큐멘터리의 제작의도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촬영팀과 수집팀의 동행 하에 촬영을 진행하였다.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에서의 인터뷰는 과정기록을 생산하지 않으며, 형식에 맞춘 질문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다큐멘터리 제작임과 동시에 기록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구술을 위한 질문지는 다큐멘터리의 기획의도를 공유하고 있는 수집팀에서 작성하였다. 구술은 수집 대상자 가운데 선별하여 진행하며, 수집 협의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현지조사 당시 수집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기본 정보를 파악하였고, 문헌조사를 진행하여 질문과 관련한 정보를 숙지하였다. 구술 인터뷰는 수집팀에서 진행하고 다큐멘터리팀은 이를 촬영하였다. 구술의 결과는 오디오와 영상파일로 생산하여 수집하였다.

구술 이외에 소장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촬영도 진행하였다. 마을 끝에 흔적이 남아있는 채석장과 성벽 바깥 마을의 좁고 가팔라 차로

는 지나가기 어려워 오토바이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골목길이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봉제공장들이 담긴 마을의 모습들을 담았다. 오랜 시간 손질이 깃든 장인의 도구, 그 도구를 사용하여 맞춤옷을 주문 받고 작업하는 장인의 모습, 미싱이 돌아가는 소리 등이 촬영되었다. 특히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봉제마을의 로드뷰는 창신동이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굴곡과 변화를 겪으면서도 옛 모습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수집팀은 고정된 사진으로 창신동 골목을 촬영하는 것 보다는 창신동 채석장부터 골목입구까지 봉제마을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길의 모양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다큐멘터리로 표현하는 것이 더 봉제마을의 삶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림 3〉 봉제마을의 좁은 골목길의 모습을 담은 로드뷰



〈그림 4〉 의상실 봉제장인의 맞춤옷을 위한 옷본

기획된 시나리오 안에서 촬영된 원기록들은 편집을 통해 다큐멘터리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 결과물은 수집팀과 공유하였으며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자막, 크레딧 등의 피드백을 거쳐 최종 결과물로 완성되었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제작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새로운 시도를 제안한다. 개인의 삶과 이야기에 집중하여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수집대상 S-NAP의 서사 안에 포함됨과 동시에 서사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S-NAP의 서사와 다큐멘터리의 서사의 관계는 보여주기 방식에서도 드러

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업팀은 다큐멘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5〉 '한양도성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 다큐멘터리 서비스 모형



온라인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이 모형은 수집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S-NAP 1.2 서울의 옛 것'과 'S-NAP 1.2.1 한양도성 안팎의 흔적들'의 서사를 보여주고 그 아래 다큐멘터리가 재생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다큐멘터리 재생창 하단에 관련된 수집기록과 다큐 촬영 원소스 기록을 연계하여 함께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본 서비스 모형의 구현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사기반 수집과정의 맥락을 보여주고 기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서비스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서울기록원의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사례를 통한 한계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작 기획의 단계에서 다큐멘터리의 다양한 양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아카이브에 익숙한 구술 중심의 참여적 양식만을 고집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의 수집 영역들은 주제영역 ‘상징’에 속하였다. 이는 서울을 표상할 수 있는 이미지나 장소 등을 주제화 한 영역으로, 구술을 중심으로 참여적 양식의 다큐멘터리 제작이 적합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집이 진행될 다른 주제영역에 대해서는 더 적합한 다큐멘터리 양식을 찾아야한다, 예를 들어 ‘흐름’이나 ‘물질’에서는 관찰적 양식<sup>2)</sup>의 활용을, ‘사상·가치’ 영역에서는 설명적 양식<sup>3)</sup>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작 과정에서 수집팀과 다큐멘터리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가 두 개의 하위 S-NAP을 포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는 역동적 현상상황에서 오는 변화이지만, 다큐멘터리의 서사가 하나의 S-NAP 서사와 정합성을 가지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서울의 기록화를 위해 계속 다큐멘터리가 제작된다면 하나의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S-NAP이 부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방향설계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같은 자료로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서울기록원의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사례로 살펴 본 ‘성벽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은 구술을 중심으로 하는 시네마 베리페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작

---

2) 연출의 개입이나 참견 없이 관찰하는 방식이다. 계획적인 연출이나 배치를 배제하고 대상의 일상에 직접 들어간다(Bill Nichols, 2001, 75).

3) 주로 역사적 문제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내레이션과 같은 구두 해설과 증거의 제시가 중요하다(Bill Nichols, 2001, 75).

되도록 기획하였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서사기반의 기록 수집에서 기록 수집만으로 채울 수 없던 서사의 완성을 위한 도구는 아니지만,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물은 기록되지 않았던 마을의 모습과 장인으로서 주민들의 모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리고 도성 밖 첫 번째 마을이자 봉제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획단계에서 다큐멘터리가 갖는 다양한 양식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구술 중심의 촬영만을 기획하였다. 그리고 촬영단계에서 시나리오의 방향이 크게 변하며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하나의 서사가 ‘한양도성’만이 아닌 ‘장인’ S-NAP의 서사를 포용하게 된 것은 사례의 한계로 남는다.

#### 4. 결론

서울이라는 도시의 기록화를 위하여 서울기록원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기록화를 제시하였다. 서사라고 하는 수집을 위한 기록 선별의 새로운 틀 안에서 일상의 기록은 서사 기반의 기록 수집에서 민간영역의 기억도 함께 남기 위한 방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안하였다.

다큐멘터리의 자의적 서사성이 도시의 서사 기반 기록화에 줄 수 있는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이 유효한 조건으로 첫째, 민간영역의 수집기록이 양적으로 불충분한 경우, 둘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함께 담길 때 서사가 입체성을 갖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자의 자기역사적 서사가 연출에 의해 재구성 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2019년 서울기록원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에 옮겼다. 다큐멘터리는 구술을 중심 제작되도록 기획하였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을 처음 시도한 만큼 한계도 있었으나, 기록되지 않은 것을 남기고, 현상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 처음 제안하고 시도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아카이브를 위해 기술기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실천주의에 입각하지 않더라도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의 의미를 찾기 위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이 아카이브에서 기록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요구되며 실제 실행 사례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서울기록원. 2019.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 완료 보고서』.
-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김지훈. 2018. 2010년대 한국 다큐멘터리의 '아카이브적 전환'과 벤야민적 역사쓰기: 〈논픽션 다이어리〉, 〈88/18〉, 〈순환하는 밤〉. 『문학과 영상』, 19(3), 379-406.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 류한조. 2020. 자기역사 구성에서의 SNS 게시물 기록 적용 연구. 『기록학연구』, 64, 63-92.
- 설문원, 김정현. 2013. 공간 중심의 연계형 기록화의 실행 방안. 『기록학연구』, 36, 233-269.
- 유지수. 2019. 리티 판의 다큐멘터리 〈우리의 모국 프랑스〉에 나타난 아카이브 활용 양상과 역사서술 방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8), 209-221.
- 유현준. 2015.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학적 시선』, 서울: 을유문화사.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13-243.
- Bill Nichols.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Indiana University Press. (이선화 역. 2005. 『다큐멘터리 입문』. 파주: 한울아카데미).
- Catherine Russell. 2018. *Archiveology: Walter Benjamin and Archival Film Practices*. Duke University Press Books.

- Randall C, Jimerson.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2016.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Sheila Curran Bernard. 2010. *Documentary Storytelling: Creative Nonfiction on Screen*. Taylor & Francis Group LLC. (양기석, 신순옥 역. 2013.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2013년 개정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